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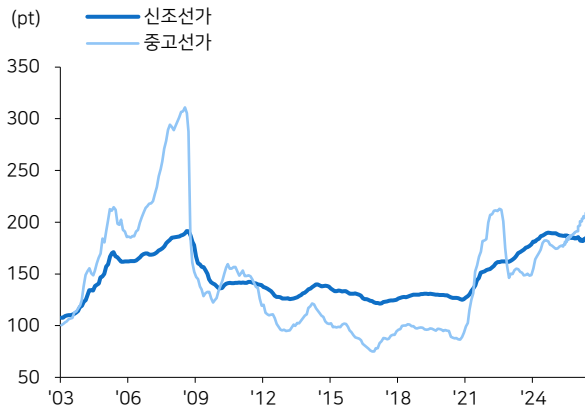


2026. 5. 19 (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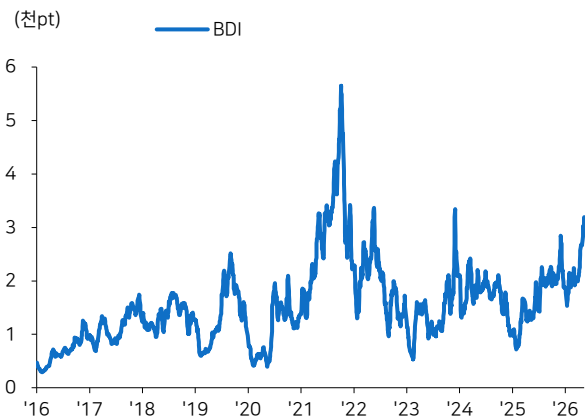
신조선가 184.6p (+0.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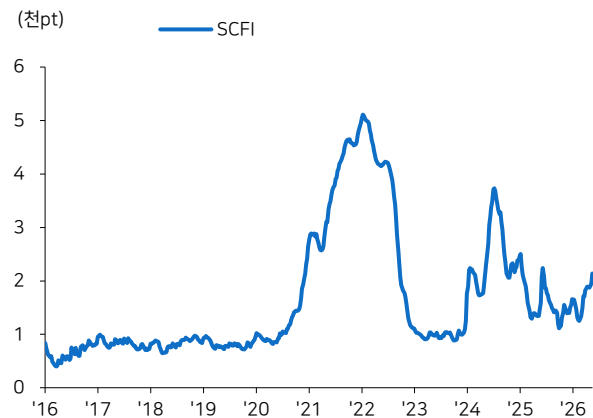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7.0달러 (+1.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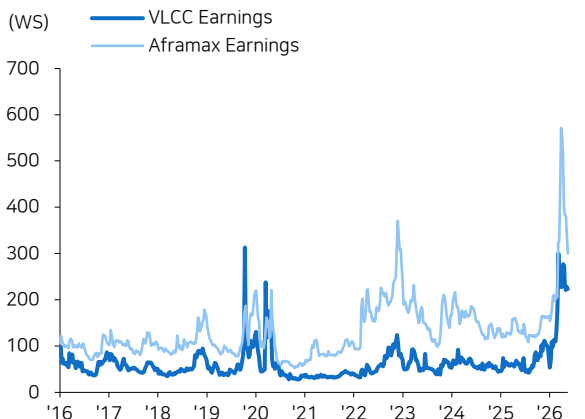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3,151.0p (-44.0p 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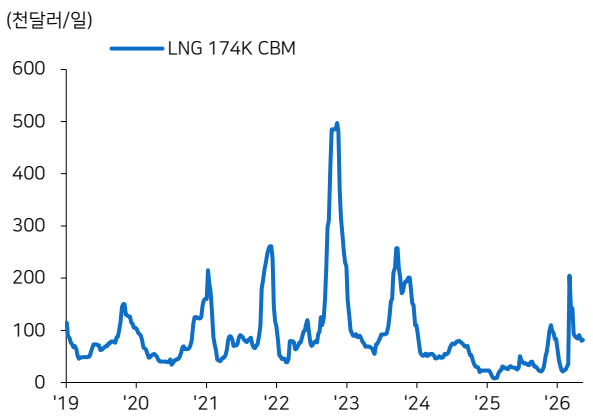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140.7(186.5 WoW)



VLCC Spot Rate 223.0WS (-4.7p WoW)



LNG Spot 운임 82.0천달러 (+2.0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eapeak books LNG carrier trio at Samsung Heavy Industries for Woodside Energy (TradeWinds)

<https://zrr.kr/Oz4aVF>

가스선 전문 선사 Seapeak가 호주 Woodside Energy와의 장기 용선 계약을 바탕으로 삼성중공업에 17만 4,000m³급 LNG 운반선 3척을 발주했다고 보도됨. 이번 계약의 총규모는 7억 5,600만 달러(척당 2억 5,200만 달러)로 저압식 X-DF 이중연료 추진 시스템이 탑재되어 2029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며, Woodside Energy의 Scarborough LNG 프로젝트 가동에 따른 물량 운송을 위해 10년 고정 금리 용선 계약(5년 연장 옵션 포함)이 맺어졌다고 전해짐. 최근 LNG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선박 공급 과잉으로 단기 운임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Seapeak는 러시아산 LNG 수입 및 기술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EU의 규제(2027년 1월 발효 예정)에 대응해 자사 Arc7 LNG 운반선들의 관리 거점을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짐.

VLCC newbuilding prices top \$131m as Pan Ocean orders four tankers (TradeWinds)

<https://zrr.kr/qaTQBv>

팬오션이 약 7,834억 원(척당 약 1억 3,100만 달러) 규모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4척을 신조 발주하며 탱커 부문 확대를 가속화한다고 보도됨. 업계에서는 공식 발표되지 않은 건조 조선소로 한화오션을 유력하게 지목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 단가는 최근 유조선 수요 급증과 조선소 슬롯 부족에 따라 1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해짐. 기존 벌크선 중심이었던 팬오션은 중고선 매입과 신조 발주를 통해 액체화물 사업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글로벌 VLCC 신조 발주 물량은 이미 100척을 넘어섰다고 알려짐.

HD 현대마린솔루션, 북미 데이터센터 전력 솔루션 시장 진출 (연합뉴스)

<https://zrr.kr/lZbXIN>

HD현대마린솔루션이 미국 에너지 인프라 개발 기업 AEG와 데이터센터 전력용 엔진 유지·보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북미 데이터센터 전력 솔루션 시장에 진출한다고 보도됨. 양사는 AEG가 미국 텍사스주에 건립 중인 데이터센터 내 전력용 엔진 33기에 대한 장기 유지·보수 및 운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이는 지난달 HD현대중공업이 AEG와 체결한 20MW급 HiMSen 엔진 기반 발전설비 공급 계약과 연계되어 진행된다고 전해짐. 최근 AI 기술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HD현대마린솔루션은 장기 서비스 계약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수익 모델을 강화하고 북미 데이터센터 시장 내 신규 수요를 선점할 방침으로 알려짐.

7 조원 KDDX 왜 또 제동 걸렸나...한화의 승부수, HD 현대의 고민 (데일리안)

<https://zrr.kr/l7nSqG>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1차 지명 경쟁 입찰이 한화오션의 단독 응찰로 유찰되었으며,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이달 중 2차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보도됨. 개념설계를 수행한 한화오션은 특수선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정면 승부에 나선 반면, 기본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은 과거 군사기밀 사고에 따른 보안 감점 부담과 원자재·인건비 상승 대비 낮은 사업 예산 등을 이유로 1차 입찰에 불참했다고 전해짐. 특히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기본설계 자료 공유 관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경쟁 환경이 변한 점과 협력사 납품 단가 압박에 대한 사회적 감시 등도 부담으로 작용한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은 여전히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제반 여건을 종합 검토 중이라고 알려짐.

무보, 현대중공업 협력사에 조선업 상생금융 첫 지원 (연합뉴스)

<https://zrr.kr/yAhSye>

한국무역보험공사가 HD현대중공업의 중소·중견 협력사를 대상으로 조선업 '수출공급망강화보증' 1호 보증서를 발급하며 상생 무역금융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고 보도됨. 이번 프로그램은 HD현대중공업과 하나은행이 선제적으로 출연한 280억 원을 재원으로 삼아 협력사들에 총 4,000억 원 규모의 우대 보증을 공급하는 구조라고 전해짐. 첫 번째 수혜 기업으로 선정된 미부중공업에는 보증비율 100%, 3년간 보증료 면제, 금리 우대 등 획기적인 조건으로 50억 원의 수출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조선업 외에도 자동차, 철강,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중소·중견 협력사를 위한 상생 무역금융 지원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짐.

US major agrees to gas supply deal for LNG development (Upstream)

<https://zrr.kr/Fs7FI1>

미국 ConocoPhillips가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개발사인 Glenfarne Group과 알래스카 노스슬롭 지역의 천연가스를 알래스카 LNG 1단계 사업에 공급하는 30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로써 ExxonMobil, Hilcorp 등에 이어 세 번째 메이저 생산 기업과의 공급 계약을 확보했다고 전해짐. Glenfarne Group에 따르면 노스슬롭에서 주 남부 지역을 잇는 1,300km 규모의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인 1단계 FID를 뒷받침할 충분한 가스 공급 계약을 확보했다고 전해짐. 향후 진행될 2단계 사업에서는 니키스키 인근에 연간 2,000만 톤 생산 능력을 갖춘 액화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